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와 시사점

이아름 연구원

■ 최근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 내외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5%로 11월 1.2%보다 0.3%p 개선되었지만 연방준비제도(Fed) 목표치인 2.0%를 하회하고 있음.
- 2013년 12월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0.8%를 기록하였지만 3.0%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던 2011년 이후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IMF 총재 Lagarde는 각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각 중앙은행이 설정한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함.

■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과 유사한 글로벌 경기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이 높은 실업률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둔화가 장기화된다면 유로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평가함.
  - 정부와 가계 모두 대규모 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함.
- 파이낸셜타임스(FT)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유로존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나타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전반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소멸되고 있다고 보도함.
  - FT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어 디플레이션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 부채가 많은 국가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함.
- 소시에테 제네럴(SG) 시장전략가 앨버트 에드워즈는 1990년대 일본에서 일어났던 상황[1]이 재연

1) 일본의 경우 수요 부진에 맞닥뜨린 기업들이 가격을 경쟁적으로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쳐 경기침체로 이어졌으며 이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일컬음.

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정체된 기업 실적과 낮은 생산성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선진국 디플레이션 우려가 신흥국으로도 확산되고 있어 ECB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됨.[2)]
- 최근 OECD와 IMF는 유로존 경제회복을 위축시키는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ECB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3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동월대비 0.4% 하락하며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PPI 상승률은 15개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선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저물가 기조는 향후 지속될 전망임.
-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투자와 소비를 비롯한 내수 부진으로 성장이 저조하여 저물가 기조가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민간 소비증가율은 80년대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15%를 기록하였지만 2013년 상반기에는 1.6%를 기록했음.
  - 또한 가계부채 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음.

(OECD, FT 등)

2) 황나영(2014),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 배경과 향후 전망」, 주간 금융경제동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